



밀원심기 운동을 전개하자

조상균

꿀

벌과 밀원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양봉인들은 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밀원을 심는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아 작물 밀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밀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장래의 양봉 사업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000년을 맞는 올해의 식목일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새롭지 않나 생각된다.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로서 앞으로 우리 양봉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양봉사업의 명암이 엇갈리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이 시대에 따라가느냐 앞서가느냐 아니면 뒤따라가느냐에 따라 미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우리 양봉인들이 현재 정도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243%의 높은 관세 장벽이 무너진다고 할 때 우리 양봉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도래하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상황은 강원도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빗물이 강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 서울에 강물이 닳칠 경우 한강이 범람하여 독이 터질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사람들은 아직 서울에 도달하지 않은 강물을

보고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현재의 양봉인들의 마음인 것 같다.

그럼 우리 양봉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지금 당장 강둑이라도 보수하고 준비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라라 생각된다.

그럼 우리 양봉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술개발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밀원을 심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하여 10년간 높은 관세 장벽을 해 준 것은 10년 동안 스스로 준비를 하라는 기간인데 과연 우리는 몇년간 어떻게 지내오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대비를 해야 하겠다.

세계의 꿀가격이 현지에서 드림 당 약 40만원 정도 하는 나라가 많은데 현재의 아카시아 생산량 정도의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밀원만 앞으로 심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꿀맛을 보았지만 외국 음

식이 우리 입맛에 안 맞듯이 벌꿀도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벌꿀이 어느 정도는 외국 꿀과 가격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관세와 운반비, 창고비, 이윤, 세금 등 여러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아카시아꿀 한 드림에 100만원이 넘지 않는 정도에서 가격 경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여 오늘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때도 새마을 운동을 반대한 사람이 없지 않았다.

지금 양봉인들이 밀원 심기 운동을 하자고 하면 언제 소득이 나에게 돌아오겠냐고 하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양봉인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오히려 밀원을 심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구엇인가 하면 기술개발 고품질 생산도 중 밀원을 심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밀원심기 운동에 불을 끄는 양봉인이 되지 말고 기름을 부어 좀더 승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불을 끄는 양봉인은 먼 훗날에 되돌아 볼 때 양봉업계의 압적인 존재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불을 끌 것이 아니라 침묵을 하던가 스스로 양봉업계를 떠나는 것이 우리나라 양봉업계를 보다 더 발전되도록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밀원을 심기 위하여 첫째로 양봉인들의 사고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전 양봉인이 밀원을 심지 않고는 양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내 땅이 없는데 어떻게 심느냐고 하겠지만 내 주위의 모든 임야나 유휴지가 등기상만 내 땅이 아니지 사용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고를 바꿀때만이 밀원을 심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양봉업의 매력 중에 여가시간이 많은 것이 큰 매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여가시간을 1년에 보름씩만 할애하여 10년간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아무리 수입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세계 양봉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가 될 뿐만 아니라 임목 밀도가 낮아 밀원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임야가 대부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림이 되었던 사유림이 되었던 밀원도 되면서 목재가치도 좋은 아까시나무, 피나무, 엄나무, 수유나무, 회화나무, 칠엽수, 참죽나무, 모감주나무 등을 심는다고 할때 얘기할 사람은 없고 오히려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아까시나무만 심어 할터인데 목재가치가 좋은 종자를 심고 양봉인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주어 부가가치를 높여주면 나무를 벌목하기 전까지는 훌륭한 밀원이 될 것이다.

첫째로 공한지에는 바이텍스, 연백초(옴굿나무), 익모초, 채키화(접시꽃)등을 심어 밀원 가치를 높여야 하겠다.

양봉인들은 밀원을 심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꿀을 따가는 것을 걱정하는 양봉인이 많은데 전 양봉인들이 나서면 지금의 아까시아처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면 당연히 법제화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걱정을 하지 않

아도 될 것이다.

둘째로 정부의 정책에 밀원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정부정책으로 밀원을 심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밀원을 심는 운동이 일어날 때 정부에서도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여 심어주리라 생각되며 양봉인들이 일치



단결하여 힘을 합할 때 더욱 더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쉽게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양봉협회나 조합에서도 정부 정책에 밀원수를 심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미래의 양봉업계를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수밀력이 좋은 종봉 개량 사업도 해주어야 하겠지만 좀 더 수밀력이 좋은 밀원 중 화기를 바꿀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육종을 하여 화기를 늘려서 채밀량을 늘릴 수 있는 일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보다도 후진국인 헝가리에서는 아카시아의 화기가 다른 종류를 육종하여 전 국토에 적절히 안배하여 밀원을 끌고루 심어 한자리에서 오래 채밀을 하고 있는데 아카시아는 화기가 짧다보니 우리는 고작 1주일 정도밖에 못보고 이동을 해야하는데 한자리에서 조생이나 만생종을 섞어 심어 이동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동안 채밀할 수 있다고 하니 부럽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국내에는 아카시나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아카시나무연구회가 발족하여 며칠 전 9회째를 맞이 하였다.

그동안 아카시나무의 벌목에 대한 홍보 및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아카시나무 벌목에 대한 저지와 우수 종자 구입 등 팔목할 만한 일들을 해오고 있다.

우리 양봉인들의 소득 중 70%가 아카시나무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전국에 4만명 이상의 양봉인들이 있는데 고작 200여명 정도의 극소수가 참여하고 있어 스스로 반성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여 소득을 보는 양봉인이라면 최소한 회원에 가입은 물론 1년에 1만원의 회비 정도는 스스로 납부하는 참여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구회가 있음으로 해서 헝가리를 비롯한 외국에서 아카시나무 종자를 몇 종류 들여왔고 국내에 있는 아카시나무 중 우수한 밀원가지가 있는 나무를 선발하여 식재해 놓고 있어 앞으로 수년내에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온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우선 예산이 있어야 연구는 물론 좋은 종자를 구입하여 국내에 보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카시나무연구회가 활성화 되는 것이 양봉인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양봉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아카시나무 연구는 물론 더 나아가 다른 우수 밀원도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인류가 생존하는 한 농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고 식물이 꽃을 피는 한 꿀벌은 영원히 존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좋은 터전을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국도가 광활한 평야 지역에서는 수백 내지 수천Km를 가도 평야지역 이다 보니 야생벌의 살 공간이 없어 자연히 꿀벌이 아니면 화분매개를 할 곤충이 없기에 정부 차원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양봉인들에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야생벌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꿀벌의 밀도도 또한 높다보니 자연 방화하는 꿀벌이 많아 꿀벌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 양봉인 전체가 1년 동안만 시설딸기 재배에 벌한 통도 넣지 않는 단결력만 보인다면 딸기 농사하는 농민에게는 안된 얘기지만 꿀벌의 중요성을 국민들이나 정부 관료의 시각을 바꾸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봉업을 한 번 가지면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애완전을 기르는 것처럼 벌을 기르는데도 취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양봉도 우리 나라보다 일찍 발달한 나라이지만 저명 인사들도 취미 양봉을 하는 사람이 많음을 볼 수가 있다. 양봉인 스스로 양봉을 그만 두어야지 하는 생각은 거짓에 불과하므로 늦었다 생각 말고 앞으로 10년간만 밀원을 심는 운동을 전 양봉인이 전개해 나가 소득도 올리면서 후손들에게 든든한 양봉 기반을 물려 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전 양봉인이 나서자.

